

“난 ‘성덕’…김다미 언니와 비교만으로도 감사”

〈성공한 팬의 줄임말〉



1408대 1 뚝고 합격, 잊지 못할 순간 절친들에게도 출연 사실 비밀 지켜 학업에 열중하며 내일 개봉 기다려 자신을 잃지 말자는게 가장 큰 목표



신에 신시아(24)가 스크린 데뷔작 '마녀 파트2, 디 아더 원'(마녀·제작 영화사금월)이 달아준 날개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영화는 2018년 318만 관객을 모으며 역시 신인이었던 김다미를 스타덤에 올려 놓은 '마녀'의 속편이다.

신시아는 전편 속 김다미와 깊은 관계를 지닌 새로운 인물 '소녀'를 연기했다. 극비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비밀연구실에서 평생을 갇혀 지내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신시아는 1408:1의 치열한 오디션 경쟁들을 뚫고 발탁됐다. 주연은커녕 연기 경력이 전무한, 그야말로 '생짜 신인'인 그는 "1편의 팬이었던 제가 2편의 주인공이라니, 난 '성덕'(성공한 팬의 줄임말)"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합격 소식, 친구에게도 비밀 지켜”

13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그는 오디션 합격 소식을 전해 들었던 2020년 12월의 어느 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 늦은 저녁까지 가슴을 졸였지만 정작 합격 통지를 받고는 “기쁨보다는 열렬함”이 먼저 밀려왔다. “난 아인가 보다 하면서 빵을 먹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았어요. 박

훈정 감독님이셨죠. ‘뭐 하고 있었냐’고 물으셔서 ‘빵 먹고 있다’고 말하니 ‘그래, 코로나도 심하니 집에서 빵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대본을 받으러 오라고 말하셨을 때는 너무 놀라 먹던 빵을 떨어뜨렸죠. 하하.”

출연 사실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말에 친한 친구들과 “한양대 연극영화과” 동기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캐스팅 관련 기사가 났다. 하지만 그가 “기사 속 주인공”이라 믿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다. 눈치를 쭤 몇몇만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축하해”라는 말을 건넸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마냥 좋아하면 안 된다’고 충고해주셨어요. 뜸뜨면 안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부모님 덕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작품에 집중하며 준비할 수 있었어요.”

●“김다미와 비교는 영광”

“김다미와 얼굴이 닮았으면서 다른 느낌을 가진 배우를 택했다”는 박 감독의 말에 동의한다는 그는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김다미와 똑 닮았다”는 누리꾼의 반응도 기쁘다고 했다.

“다미 언니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 생각해요. 1편에서 언니가 정말 멋지게 잘 해주셨잖아요. 그런 언니와 동일선상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지요.”

“평범한 대학생”이기도 한 그는 “기말고사 과제를 하며” 주연작의 15일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개봉일이 다가올수록 “학생으로서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

“나 자신을 잃지 말자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배우라는 직업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무수히 많은 의견의 중심에 놓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견을 수용하며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끌려 다니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영화 '마녀 파트2, 디 아더 원'으로 첫 스크린 주연을 맡은 배우 신시아는 “부모님의 충고에 따라 뜸뜨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사진제공 | NEW



배우 홍수아가 영화 '감동주의보'를 통해 5년 만에 국내 관객을 만난다. 사진제공 | 뉴스튜디오보난자

스크린 돌아온 홍수아 ‘감동주의보’

5년 만의 주연작 22일 개봉…로코 여주로 변신

홍수아(35)가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감동주의보'(제작 글로벌엔터테인먼트)로 22일 스크린을 찾는다. 2020년 한중합작 공포영화 '목격자:눈이 없는 아이'에 출연했지만, 오묘한 한국영화로는 2017년 '역도:반란의 시대' 이후 5년 만이다.

홍수아는 큰 자극을 받으면 감정조절 기능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희귀질환자인 컬링 천재를 연기한다. 병 때문에 컬링을 포기한 채 살아가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순박한 시골청년을 만나 점차 행복을 찾아간다.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감동주의보' 시사회에서 홍수아는 “감동을 잘 받고 눈물이 많은 극중 캐릭터와 똑 닮았다”면서 “시나리오를 보고 ‘이건 내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밝으면 서도 따뜻한 캐릭터가 너무 좋았다. 이전의 도시적인 느낌과 상반되는 수수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2년 전 중국영화 '목격자:눈이 없는 아이'를 선택했지만, 한국영화는 정말 오랜만이다. 한국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다”는 벅찬 소감을 내놔다. 사실 그는 2003년 '조폭마누라2'로 데뷔한 뒤 '여고괴담3:여우계단', '잡북군부' 등에 출연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파워 넘치는 프로야구 시구와 성형 등 외적 이슈로만 부각돼 왔다. 또 2013년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다 2020년 SBS 드라마 '불새 2020'으로 컴백했지만, 평균 5%의 비교적 낮은 시청률로 중영했다.

그런 만큼 절치부심하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는 '감동주의보'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승미 기자

연예뉴스 HOT 3

천정명, 주짓수 11년 만에 블랙벨트

배우 천정명이 주짓수 블랙벨트를 획득했다. 천정명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11년의 결실 주짓수 블랙벨트를 드디어 받았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천정명이 주짓수 도복에 블랙벨트를 두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천정명이 받은 블랙벨트는 주짓수의 최상위 등급으로 화이트, 블루, 퍼플, 브라운 순으로 승급한다. 누리꾼들은 “인간 승리”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천정명은 드라마 '도시경찰: KCSI', 영화 '얼굴없는 보스: 못다한 이야기' 공백기를 갖고 있다.

서태지, 빌딩 매각…시세 차익 300억

가수 서태지가 20년 전에 구입한 서울 논현동 소재 빌딩으로 약 3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태지는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주역 인근 3층~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을 387억 원에 매각했다. 2002년 당시 약 50억원에 매입했고, 2005년 45억원 가량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로 데뷔한 그는 ‘난 알아요’, ‘컴백홈’ 등을 히트시켰다. 1996년 팀 해체 이후 솔로 활동 중이며 2013년 배우 이은성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김재중, 9월 서울 시작으로 5년 만에 亞투어

가수 김재중이 5년 만에 아시아 투어를 개최한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3일 “김재중이 9월 서울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콘서트를 진행, 아시아 투어로 글로벌 팬들을 만난다”라고 밝혔다. 김재중은 9월 17,18일 서울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후 9월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0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며 아시아 각국의 팬들을 만나 특별한 추억을 쌓는다. 한편 김재중은 드라마 ‘나쁜 기억 지우개’를 통해 오랜만에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코드쿤스트·김이나·딘딘, 연애 예능 ‘맞짱’

코드쿤스트, ‘체인지 데이즈2’ 진행 김이나, ‘마녀사냥 2022’ 합류 확정 딘딘, 내달 ‘나대지마 심장이’ 선포



코드쿤스트 김이나 딘딘

음악프로듀서 코드쿤스트, 작사가 김이나, 래퍼 딘딘이 ‘연애 예능 강자’로 떠올랐다. 각 방송사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연애 소재 포맷 특성상 출연자와 시청자 사이를 잇는 진행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코드쿤스트는 장도연·양세찬·허영지와 함께 카카오톡TV ‘체인지 데이즈2’를 진행하고 있다. 이별을 고민 중인 네 커플이 서로 짝을 바꿔 데이트하는 과정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호평을 얻고 있다. 지난해 5월 시즌1에서 출연자의 심리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며 ‘연애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를 발판삼아 연애 상담 콘텐츠인 티빙 ‘마녀사냥 2022’에 캐스팅됐다. 활동 영역도 부쩍 넓려 MBC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김이나는 남다른 감수성과 경험으로 MZ세대들의 공감을 끌어 모으고 있다. 채널

A ‘하트시그널’과 ‘고막메이트’ 시리즈 등 연애 관련 콘텐츠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며 20대 출연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어록’을 만들어냈다.

코드쿤스트와 함께 ‘마녀사냥 2022’에 나서는 그는 티빙 ‘결혼과 이혼 사이’ 등 다양한 관찰 예능 콘텐츠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딘딘은 7월 15일 채널S·K-STAR의 ‘나대지마 심장이’를 내놓는다. ‘우정과 사랑 사이’에 놓인 남녀 출연자들의 열혈한 합숙기이다. 앞서 ‘고막메이트’, 엠넷 ‘러브캐처’ 시리즈 등을 화제에 올리면서 관련 콘텐츠 제작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자신의 연애와 이별에 얽힌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공개하는 솔직한 매력에 인기 비결로 통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넷플, 2024년 10월31일 공개 밝혀 시즌1 이정재·이병헌 재출연 가능성

“기훈과 프런트맨이 돌아옵니다.” 지난해 세계를 뒤흔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시즌2가 2024년 10월31일 공개를 목표로 본격 제작된다. 넷플릭스는 13일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연출자 황동혁 감독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날 황 감독은 “이제, 기훈이 돌아온다. 프런트맨이 돌아온다. 시즌2가 돌아온다”고 밝혔다. 기훈은 ‘오징어게임’ 시즌1의 주인공으로 이정재가 연기했다. 프런트맨은 극중 게임 진행을 지휘한 인물로, 이병헌이 맡았다. 이에 따라 시즌2의 주역은 이정재와 이병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감독은 이어 “딱지를 든 양복남도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영희의 남자친구 철수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딱지를 든 양복남” 기훈을 처절한 게임으로 이끄는 캐릭터로, 공유가 특별출연했다. 영화는 극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등장한 거대 로봇 인형이다. 넷플릭스는 시즌2 제작을 알리는 영상에서 영희의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시즌2를 제작한다. 사진은 인형 ‘영희’의 눈에 숫자 ‘2’가 그려진 새 포스터. 사진제공 | 넷플릭스

456억원의 상금을 쥐기 위해 목숨을 내건 게임에 참가한 기훈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해 9월17일 전 세계 190개국에서 공개돼 28일 동안 누적 16억 5045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콘텐츠 역대 1위에 올랐다. 이정재를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시키며 한국드라마 최초의 미국 고섬어워즈, 극중 게임 참가자 ‘1번’ 오영수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등 다양한 성과로 거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눈에 숫자 ‘2’를 새겨 넣은 장면을 선보였다.

황 감독은 “더욱 새로운 게임,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다”면서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만큼 ‘오징어게임’ 시즌1의 성공을 의식한 셈이다.

시즌 1은 456억원의 상금을 쥐기 위해 목숨을 내건 게임에 참가한 기훈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해 9월17일 전 세계 190개국에서 공개돼 28일 동안 누적 16억 5045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콘텐츠 역대 1위에 올랐다. 이정재를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시키며 한국드라마 최초의 미국 고섬어워즈, 극중 게임 참가자 ‘1번’ 오영수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등 다양한 성과로 거뒀다.